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미도리(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 중간정리 외¹⁾

미도리(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 중간정리

- 일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3월 5일,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중간정리를 발표함.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2020년 10월부터 농림수산성 내에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종 전략은 오는 2021년 5월에 발표 예정임.
- 본 전략에서는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무배출 실현 및 농약·비료 사용량 감소, 유기농업 면적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정리에서는 12개의 KPI(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였음.
 - 2050년까지 농약사용량은 50%, 화학비료 사용량은 30%를 감소시키고 유기농업 면적을 100만 ha로 확대 등의 목표를 발표함.
- 2050년까지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의 달성 목표(KPI)는 다음과 같음.
 - (온실가스)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 실현
 - (농약) △2040년까지 기존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농약 등 개발, △2050년까지 농약사용량 50% 저감

1) 일본 농림수산성 “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 策定に当たっての考え方”(2021.3.5.),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食料安保に関心」6割 “国産派”も増 コロナで高まる 全中調査”(2021.3.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midori/team1.html>, <https://www.jacom.or.jp/nouyaku/news/2021/03/210305-49858.php>), <https://www.agrinews.co.jp/p53540.html>).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 **(화학비료)** 2050년까지 수입원료 및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화학비료 사용량 30% 저감
- **(유기농업)** 2040년까지 농업인 대다수가 주요 품목을 유기농업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유기농업 기술 확립, △2050년까지 유기농 시장을 확대하고 유기농업의 면적을 전체 농업면적의 25% (100만 ha)까지 확대
- **(원예시설)**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로 전면 전환
- **(농림업기계·어선)** 2040년까지 농업기계·어선의 전기·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 확립
- **(식품손실)** 2030년까지 사업계 식품손실을 2000년도 대비 절반으로 감소
- **(식품제조업)** △2030년까지 식품제조업의 자동화 등을 추진하여, 노동생산성 30% 이상 향상 (2018년 기준), △2030년까지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여 음식료품 도매업의 경비 비율을 10%로 감축
- **(지속가능한 수입 조달)** 2030년까지 식품기업에서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수입원재료 조달 실현
- **(산림·임업)** △정영목(elite tree) 등 성장력이 뛰어난 묘목을 2030년까지 임업용 묘목의 30%, 2050년까지 90% 이상으로 확대, △2040년까지 고층 목재 기술 확립, △목재에 의한 탄소저장 확대 도모
- **(어업·수산업)** 2030년까지 어획량을 2010년과 동일한 수준(444만 톤)까지 회복(2018년 어획량 331만 톤)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구체적 대응〉

◆ 자재·에너지 조달 시 탈(脫) 수입·탈(脫) 탄소화·환경부담 경감 추진

- △지속 가능한 자재 및 에너지 조달, △지역·미이용자원 적극 활용 대응, △자원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체계구축 및 기술 개발 추진

◆ 혁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체계 구축

- △높은 생산성과 양립 가능한 지속적 생산체계로 전환, △기계 전동화(電動化)·소재 그린화, △친환경적인 슈퍼 품종 등 개발 및 보급, △농지·산림·해양을 활용한 탄소 장기·대량 저장, △노동 안전성·생산성 향상과 생산자 저변확대, △'새로운 자원관리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 추진

◆ 무리·낭비 없는 지속 가능한 가공·유통시스템 확립

- △지속 가능한 수입 식량·원재료로 전환 및 환경 활동 촉진, △데이터·AI를 활용하여 가공·유통 효율화, △장기보존, 장기수송에 적합한 포장 자재 개발, △탈(脫)탄소화,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 및 먹거리 교육 추진

- △식품손실 감소 등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촉진, △영양 균형이 뛰어난 일본형 식생활 종합적 추진, △건축 및 생활에서 목재 활용 활성화 추진, △지속 가능한 수산물 소비 확대와 유통 적정화 추진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구체적 대응〉

◆ 식량시스템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창조

- △기반정비 추진,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추진, △다양한 기능을 갖는 도시농업 추진, △다양한 농지 이용 추진, △식량생산·생활기반을 지탱하는 산림 정비·보전,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발휘

◆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기술 확립 및 연계

- △산학관 연계,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기반정비 및 활용, △인재 육성, △미래기술에 투자 확대, △국제적인 연구체제 구축, △지적재산 전략적 활용, △품종개발력 강화, 스마트푸드체인 구축, △국립연구개발법인 강화

◆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목재 활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와 고정 최대화(중간정리에서 새롭게 추가)

- △임업 이노베이션 등을 통한 산림흡수 향상,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한 탄소저장·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최대화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량안보 관심 증가

- JA전중의 조사²⁾ 결과, 일본 국민의 약 60%가 코로나19의 영향 이후 식량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약 70%는 국산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었음.

- 기존에도 식량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식량안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 국민의 식량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국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의 중요성(식량안보)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는지 조사한 결과, 18.4%가 '이전에는 관심 있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관심이 생겼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짐' 19.6%,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관심이 높았음' 22.7%로 60.7%가 식량안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성이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게 조사되었음. 연령층 별로 보면 이전부터 관심이 높은 사람의 비율은 남녀 모두 연령층이 높을수록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새롭게 관심이 생기거나 관심이 높아진 사람의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식량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산 식품을 많이(외국산을 구매하던 것을 국산으로 구매) 구매하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72.6%가 국산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음' 37.5%,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구매하고

2) JA전중은 식품 및 농업, JA에 관한 여론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전국의 20~60대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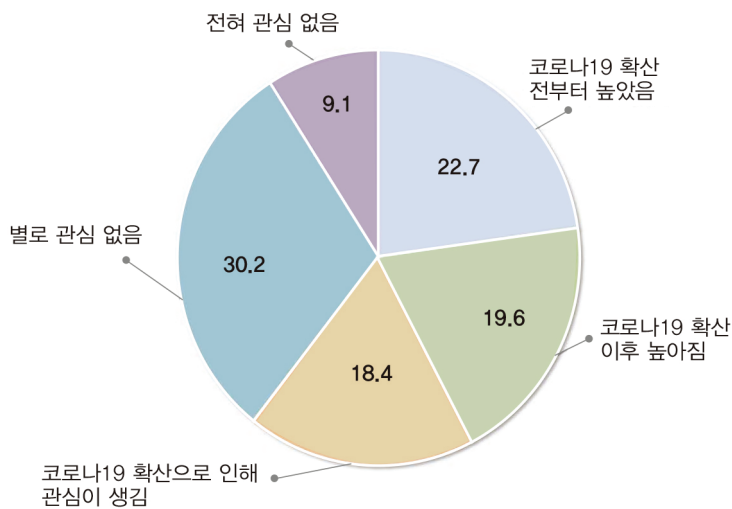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있었으나 더욱 구매하게 되었음' 22.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음' 12.9% 순으로 조사됨.

- JA전중은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국내생산과 국내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그림 1.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식량안보에 관한 관심(%) |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업 DX(디지털 전환) 구상³⁾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3월 11일, 디지털 변혁 추진 로드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 DX(디지털 전환) 구상안을 발표함.
 - 농업 디지털 전환 방향성 및 추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행하고 디지털 기술 진보 및 농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내용·일정을 기동적으로 점검을 추진함.
- 현재 일본 농업은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도입을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향상).

3)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DX構想(仮称)の構成(案)”(2021.3.1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kanbo/dmap/attach/pdf/nougyoudxkousou-47.pdf>).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 일본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 높은 영농을 추진하고, 소비자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농산물 및 식품을 제공하는 농업(Farming as a Service, FaaS)으로 변혁을 실현하고자 함.
- 소비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다양한 모순을 극복⁴⁾하여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농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사회경제 전체 디지털화 지연, △경제 분야의 기존 ‘연결’의 분단, △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 △행정 운영 비효율성, △디지털 시대의 사회 인프라 등의 과제가 대두되었음.

| 농업 DX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 기술 활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현장 실증을 전국 148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확산 및 통신 인프라의 정비 등 본격적인 사회 실증을 가속화 하는 단계임. •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전국의 약 20% 이하 수준이며, 각종 제도에 따라 농지 정보가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농업인 및 업무에 부담이 발생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영 개선 대응 촉진 및 부담 경감이 필요함. ◆ 농촌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디지털 기술에 의해 지금까지 접점이 없었던 도시 및 지방의 주민이나 지역 내 타 분야 인재를 연계하는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과제해결 및 지역자원 활용이 기대되나 현시점에서는 한정적임. • 야생동물대책, 농업 기반 정비 등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화 및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도입은 이제부터 추진해야 할 단계임. ◆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효율화·자동화를 위해 타 산지에서 공동 수송, 혼재, 최적의 수송경로 선택 등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나 농업 분야에서는 한정적인 상황임. •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농업인이 직접 연계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생산·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류에서 하류까지 데이터로 연결을 통한 정보 공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식품제조업, 외식·간편식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업 및 외식산업 등의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통한 식재 가공 및 식기세척 등 다양한 곳에서 로봇의 활용이 기대됨. • 자원순환형 식량공급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 단백질, 기능성 식품 등을 이용한 푸드테크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함께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구조 구축도 요구되고 있음.

4) 극복 방안 사례로는 한 번에 여러 대의 자율주행 트랙터를 운용하여 소수로도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대규모 생산 실현,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통해 수요 변화를 읽어 국내의 다양한 수요에 기동적인 식량 생산을 통해 소비자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이 있음.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구분	주요 내용
	<p>◆ 행정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기반한 행정 절차 및 보조금·교부금은 현재 서면을 통한 신청 및 수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농림수산성 공통 신청 서비스(eMAFF)를 활용하여 온라인화 하는 것이 급선무임. 농림수산성의 인사, 회계 절차 등 내부관리 업무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방침에 기반한 농업DX 추진(디지털 3원칙⁵⁾ 및 디지털 사회를 형성을 위한 10개 기본 원칙⁶⁾) 디지털 기술 활용을 전제로 한 발상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한 이노베이션 촉진 소비자·이용자 관점 중시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식품 관련 산업 현장(스마트농업 추진 종합패키지,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전국전개 프로젝트, 소비자 중점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농산물 유통 효율화 프로젝트, 스마트 식품 제조 추진 프로젝트 등) 농림수산성 행정업무(업무 근본적 재검토 프로젝트, 데이터 활용 인재 육성 추진 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한 EBPM·정책 평가 추진 프로젝트 등) 현장과 농림수산성 연계(eMAFF 프로젝트, eMAFF 지도 프로젝트, MAFF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등)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수산성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검토 외기

□ 농림수산성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검토

-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2050년 탈탄소 사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2050년 발전전력량(약 1.3조~1.5조kWh)의 약 50~6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함.
- 이를 기반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의 50%를 농산어촌에서 생산하는 목표를 검토 중임.
- 오는 2021년 5월에 공표할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에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목표로 제시할 계획임.

5) 디지털 3원칙으로는 디지털퍼스트(오프라인 중심의 운전 전략을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 원스온리, 커넥티드·원스톱이 있음.
 6) 오픈·투명, 공평·윤리, 안전·안심, 계속·안정·강인, 사회문제 해결, 신속·유연, 포섭·다양성, 침투, 새로운 가치 창조, 비약·국제공헌을 포함한 10개의 기본 원칙을 말함.
 7) 일본농업신문 “再エネ 5割農山漁村で 50年目標検討 優良農地確保に課題 農水省”(2021.3.13.),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における各プロジェクトの成果”(2021.3.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co.jp/p53686.html>,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kikaku/bukai/attach/pdf/93shiryu-1.pdf>).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 농림수산성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패널 지주 부분의 농지 일시 전용 허가, 패널 설치 농지에서 지역의 평균 단수의 80% 이상 수확 등의 요건이 있음.
 -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황폐농지 재생이용 시 재생 곤란 및 황폐농지를 비농지로 판단 절차 신속화, 농산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의 대상 농지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발표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황폐농지 발생 방지 및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우량농지 확보에 충돌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각 프로젝트 성과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3월 12일,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하였음.
- **[스마트농업]** 스마트농업 현장 도입 가속화 정책을 정리한 ‘스마트농업 추진 종합패키지’를 2020년 10월에 수립·공표하고, 2021년 2월 예산을 확정하였음.
 - 종합패키지에서는 △스마트농업 도입 및 성과 보급, △공유 등 새로운 농업 지원 서비스 창출, △데이터 활용 및 농지 인프라 등 스마트농업 도입 환경정비, △농업 고등학교 등에서 스마트농업 교육 확충, △스마트농업 기술 해외 전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관련 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 종합추진대책사업’(2020년도 3차 보정 예산 62억 엔, 2021년도 당초 예산 14억 엔)이 있으며, ‘농업 지원 서비스 사업 육성대책’ 등을 신설하였음.
- **[농촌정책·토지 이용 방향]** 2020년 5월 ‘새로운 농촌정책 방향에 관한 검토회’ 및 ‘장기적 토지이용 방향에 관한 검토회’를 설립하여 농촌정책 및 토지이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중임.
 - 현재까지 농산어촌 지역 조성 핫라인 설치 및 정부 부처 연계 지역 조성 지원 정책집을 공표하였으며, 지역 조성 인재육성 연구 커리큘럼 작성(2021년) 등을 추진함.
 - 또한, 2020년 12월에 공표한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에서 추진 중인 △소득 및 고용 기회 확보, △다양한 형태로 농업에 관여하는 인구를 농산어촌에 유입, △다양한 농지 이용 등과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사업체 육성을 통한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추진도 함께 검토하여 2021년 3월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재해 등 위험에 강한 농업]** 농림수산성은 2021년 1월 농업인이 스스로 자연재해 등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등 위험에 견디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농업판 BCP8’를 수립하여 공표하였음.

- 2020년 6월 수입보험 가입현황 및 유사 제도로부터 이행 현황 및 현장 의견 등을 공개하였으며,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망 대책 검토를 통해 2022년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 **[SDGs·식량소비]**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다원적 기능 등)를 새롭게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를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 시작함.

- 식품과 환경을 지탱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양성하기 위해 식생활교육 및 지산지소 등을 통해 소비자·식품 관련 사업자·생산자 단체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으로 식품과 농업의 연계 강화에 주목한 새로운 국민운동을 추진함.

■ **[보리·대두 생산 확대]** 국산 보리·대두의 수요에 대응한 생산 확대를 위해 ‘보리·대두 수익성·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에서 보리·대두 경작지 단지화 및 경영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함.

- 생산성 향상, 풍작·흉작 변동에 대응한 보관시설 정비, 상품 개발·매칭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수립함(2020년도 3차 보정 및 2021년도 당초 예산: 61억 엔). 또한, 기반 정비를 추진하여 논 범용화 등을 시행할 예정임.

- 2021년 4월부터 도도부현(광역 자치단체) 및 산지 ‘보리·대두 생산량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산지 단위로 수요 대응한 보리·대두 생산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임.

■ **[지역 영농지원]** 지역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계승·발전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2021년도 당초 예산 15억 엔).

- 2020년 12월 개정된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에서 본격적인 인구감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농업경영인을 확보 및 농지 이용 촉진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고려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2021년 6월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3.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업무 연속성 계획으로 자연재해 및 감염증, 대형사고 등 재난 발생 시 핵심이 되는 사업을 유지 및 단시간에 복구시키는 방법 등을 미리 결정해 두는 계획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4.): 일본

4 지역부흥협력대 현황⁹⁾

- 일본 총무성은 2021년 3월 23일, 2020년 지역부흥협력대 대원 수는 5,464명으로 전년 대비 115명 증가하여 시행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발표함.
- 지역부흥협력대는 총무성이 추진하는 농산어촌 이주 활성화 정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였음.
 - 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하여 1~3년 동안 해당 지역의 지역브랜드 및 지역 특산품 개발, 판매, PR,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함.
- 2020년 기준 1,06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을 보류한 지역이 있어 2019년 대비 6곳 감소하였음.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 수용 인원은 홋카이도가 699명으로 가장 많으며, 나가노현이 416명, 고치현이 220명 순으로 많음. 대원 구성은 남성 59%, 여성 41%이며, 20~30대가 70%를 차지함.
- 현재까지 임기를 마친 대원 수는 6,525명으로 전년 대비 1,677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63%가 부임 지역에 정착하였음. 총무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귀농·귀촌 흐름이 강해졌다고 보고 있음.
 - 정착한 대원은 취업(41%) 및 창업(39%)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3%로 조사됨.
- 일본 정부는 2024년까지 대원을 8,000명까지 늘리는 목표를 설정함. 총무성은 지원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력대 인턴제도¹⁰⁾를 새롭게 시행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4.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일본농업신문 “地域おこし協力隊 最多の5464人 任期後定住は6割 20年度”(2021.3.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news.co.jp/p53820.html>).

10) 기존에는 1~3년 및 2박 3일 체험 제도만 존재하였음. 2주~3개월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인턴제도를 통해 방학을 활용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체험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